

마지막이 아름다운 하나님 사람 모세

본문 신 34 : 1 - 12절

David HONG

1. 전체배경

오늘 본문 34장은 신명기 전체의 마지막 장으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과 함께 모세 오경을 마무리 한다. 이 신명기 마지막 장은 마지막장 답게, 모세 오경 전체를 마무리 하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인가? 와 '하나님의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 하였다.

2. 관찰

1)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지도자) 인가?

1 - 4절 : 모세의 공생애는 산(호렙산)에서 시작해서 산(느보산)에서 마쳐진다. 모세는 이제 요단 동쪽 아바림 산맥 서북쪽에 위치한 여리고 맞은 편의 모압 땅 비스가 산지 최고봉인 느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요단 서쪽의 약속의 땅을 두루 살펴보았다. 모세는 길르앗 - 단 - 납달리 - 에브라임과 므낫세 - 유다 - 서해(지중해) - 네게브 (남쪽 광야) - 까지 두루 보았으며, 아마도 혼자 올랐을 것이다. 또한 모세가 본 영토는 역사적으로 다윗 - 솔로몬 시대에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5 - 6절 : 여기서 마지막까지 빛난 모세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보게된다. 그는 6절에 보면 그의 죽음을 장소를 알리지 않았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사전에 유연한 조치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파급효과'를 누구보다 잘 알았던 바, 즉 자신을 '우상화'하는 길 - 비교해 보라, 삼국지 시대에 명장 관우는 그가 죽은 후에 3국에서 다 사당을 짓고, 그를 우상화 하였다. 반대로 개혁자 칼빈의 무덤도 알려지지 않았다. -을 선택할 위험성의 근원을 스스로 완전히 차단하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무덤이 알려 질 경우, 사람들이 그것을 성역화 하거나, 우상화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며, 그 유해를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시도할 염려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7 - 8절 : 여기서 이 구절을 특별히 언급한 것은 모세의 죽음이 단순한 노쇠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소명을 완수한 종으로써 하나님의 소천(所天)을 받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고대에서 시력의 약화는 노쇠의 상징인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기력은 '생기'를 의미하는 바, 마지막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0일 장을 치루었는데, 이는 부모상을 당했을 때 애곡하는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과 모세를 친 부모처럼 공경하고 따랐던 것을 알 수 있다.

2)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 : 9 - 12절

아마도 여기서부터 구절인 9 - 12절은 후에 학사 에스라가 편집해서 추가해서 넣어둔 구절이라고 생각한다. 학사 에스라는 학사답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 대한 인물전을 간단히 3개로 압축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야 할 모델을 제시하였다.

❶ 인간의 유한성을 아는 '겸손한 사람' 모세 : 9절

먼저 앞서서 모세는 '자신을 우상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계획하지 않을 정도의 철저한 겸손의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은 한낱,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이제 그 쓰임받음을 다하였기에 다시 '흠'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임을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고 노력했다.

또한 그렇기에 9절에서 모세는 차기 지도자이며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자신의 리더쉽을 아름답게 '물려주고' 무덤 하나도 없이 역사에서 사라진다. 그는 마지막 죽음 앞에서조차 철저한 2인자였으며, 또한,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격려하는자' '위임하는 자'로써의 리더쉽의 모델을 보여 주었다.

❷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모세 : 10절

이 10절의 히브리 원문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그를 아셨던 모세'이다. 이 대면은 Face to face로, '얼굴이 얼굴로'이다. 이 표현은 문학적 표현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은 자가 없었던 바, 이는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즉, 하나님과의 깊은 동행과 대면은 이후에도 전혀 없었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 모세보다 더욱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소개하지만 (히 3 : 1 - 6) 이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므로 결국 인간 중에서는 모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그가 이렇게 '우상화' 될 만큼의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모든 크리스찬 영적 리더쉽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명심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없이 하나님의 '사역'도 없다' 모든 리더쉽은 결국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❸ 끝까지 '사명'에 충실했던 '능력자' 모세 : 11 - 12절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출애굽'을 달성한 지도자'이었다. 즉 그는 지난 40년간 이 소명을 호렙산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받은 이후로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켜 차기 지도자를 세워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본인의 '사명'을 잘 실천하고 완수한 능력있는 지도자였다.

3. 해석 & 적용

1)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이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 그가 전달하려 했던 메시지는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가? 하는 것이다. 그의 마지막 조지를 통해서 모세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모든 위대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한다.

즉 자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유한한 인간일 뿐이며 또한 그렇게 한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쓰임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종’에 불과한 존재임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것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인으로써 필요한 때에 필요한 종을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즉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시대마다 때마다 필요한 종을 일으키심으로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시켜 가신다. 진정한 지도자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잘 가진 리더라면, 먼저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헛된 교만에 빠지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는 ‘종’에 불과함을, 그러나 그렇게 ‘쓰임’ 받는 ‘영광’을 누리는 자임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2)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

① ‘겸손한 사람

아마도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모세를 소개할 때 성경은 그는 모든 지면의 사람들 보다 더 ‘온유 = 겸손’ 했다고 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잘 길들여진 말을 의미한다. 즉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절제한 2nd leadership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오늘 본문처럼, 자신은 유한한 인간이며, 단지 쓰임 받은 ‘종’이라는 겸손한 생각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순종’하려는 이 모세의 태도는 그가 왜 이토록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를 보여 주는 대목이다.

좋은 리더는 먼저 좋을 팔로우여야 한다. 즉 하나님에게 철저히 순복하고 그분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신의 팔로우들도 그를 쫓아갈 것이다. 모세는 바로 이 겸손함에서 탁월했다.

② ‘친밀한 사람’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만을 철저히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힘썼다. 사실, 잘 듣지 않으면 잘 지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잘 쫓아가려면 잘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교제가 사역의 근원이 되며 또한

리더쉽의 권위의 원천이 됨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리더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민감하며, 꾸준히 힘써야 할 것이다.

❸ 사명에 충실한 사람

마지막으로 리더는 '사명'의 사람이다. 그는 비전이 뚜렷하다. 하나님이 자기를 무엇에 어떻게 쓰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 눈 팔지 않는다. 그는 한 마디로 목표가 뚜렷한 사람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리더란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깨닫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확고히 실천하는 사람이다.

※ 적용 Tip

당신은 어떠한가?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한 발 앞서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리더쉽이다.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 오늘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는가? 오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사는가? 또한, 당신은 오늘 해야 할 사명에 충실한가? 오늘 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